

## 수능 국어에 대한 이론

수강 권장 대상: 5등급~1등급

1년간 국어 공부의 갈피를 못 잡겠을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 읽으시면 좋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필자만의 뚜렷한 공부에 대한 가치관과 독해 방법을 설명할 것이므로 독자가 수강하는 강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신 후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챕터 1) 비문학 그래서 어떻게 읽는데? (단어-문장-문단-글)

챕터 2) 실전 연습

챕터 3) 비문학 기출 분석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챕터 4) 올바른 사설 비문학 활용법

챕터 5) 문학 그래서 어떻게 읽는데? (지문, 선지)

챕터 6) 실전 연습

챕터 7) 문학 기출 분석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챕터 8) 올바른 사설 문학 활용법

챕터 9) 사소한 수능 당일날 국어 tip

챕터 1) 비문학 그래서 어떻게 읽는데? (단어-문장-문단-글)

우선 제가 생각하는 수능 국어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사실 9등급부터 만점자 모두에게 물어도 같은 답이 나올 만큼 당연한 소리..

그런데 제대로 지문을 이해하며 읽는 건 고정 1등급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지조차도 모릅니다

우선 목차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어는 반드시

[단어-문장-문단-글]

이것들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독해가 되어야 지문을 “이해”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게 [단어-문장-문단-글]을 순서대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음 페이지에 서술하겠습니다.

[단어] 어떻게 이해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니 사어단어가 단어지 뭘 독해법이 있어’라고 생각 하실텐데, 사실 단어를 정확히 읽어야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이해하며 글의 짜임새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즉, 단어조차 잘 못 읽으면 글을 못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어를 읽나

간단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날려 읽지만 얇으면 됩니다.

누가 이걸 못해 싶은데 기출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자기자본  $\times 100 \geq 8(\%)$  위험가중자산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중략)

최근에는 ‘바젤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되게 별거 아닌 문장 같은데, 당시 많은 수험생들이 바젤III 협약에서 변화한 ‘기본자본’의 최소비율을 ‘자기자본’에 대한 서술로 독해하여 <보기>의 5번 선지를 못 푼 경우가 상당히 많다.

⑤ 값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이로부터 정말 세세한 단어까지 정확한 독해를 수능국어에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어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해 주어야 한다.

이제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읽으며 생각을 하는 법 또한 배워보자. 물론 기출을 통해서

이중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레트로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간 후 역전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

기본적으로 한 문단 내에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를 비교하며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위 두 단어에 네모를 치고 그 둘의 특징들에 밑줄을 치기 바쁘겠지만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읽어보자.

다만 이 파트에서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단어에 관한 생각을 위주로 해보자.

사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근데 내-인-성이네 그러면 일반 레트로바이러스와 다르게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는 건가? 아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 레트로바이러스가 '생명체의 내부'에 들어가서 감염시키면 '내인성'레트로바이러스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냥 전사가 아니라 '역전사'과정을 한다고?

그러면 전사과정의 반대가 역전사인가?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 전사:DNA->RNA, 역전사:RNA->DNA

역시 내 예상이 맞네.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사고: '북학파'가 등장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독해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볼까? 아무래도 북-학-파를 보면 “북방으로부터 무언갈 배우자”라고 주장할 것만 같다. 실제로 그 뒤를 읽어보니 청(북)의 문물제도를 수용(학)하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사고: 아무래도 '모방론'이니까 모방(재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너무도 당연하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사고; '표현론'이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표현하겠지?

아 근데 그 무언가가 모방론과는 다르게 예술가의 마음이구나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사고; '형식론'이 형식을 중시하지 않으면 대체 뭘 중시하겠어...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의 주장이 "이해"가 된다.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를 읽어보며 그 속의 수식어 (내인성,역)들을 통해서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의 주장을 읽기 전에 그 이론의 명칭을 통해 자연스레 그들의 주장을 예측할 수 있다.(모방,표현,형식)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해 또한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문장] 어떻게 이해하는데?

이제 단어를 읽었으면 문장을 읽는 법을 배워보자.

이 또한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저 여러 단어를 연속해서 읽어 줄 뿐..

다만, 생각을 하며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필자는 문장의 전제를 계속해서 생각해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한다.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자.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사고: 우선 기본자본의 최소 비율을 올렸을 때 자기자본의 손실복원력이 강화되는 걸 보니 자기자본 내에 기본자본이 포함되는건가.

그리고 기본자본은 자본의 손실과 직결되는 요소인가보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사고: 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항이 된걸 보니 아마 개항은 척사파가 반대한 내용을 의미할 거 같네.

즉, 개항=서양의 과학과 기술,천주교의 수용을 의미하겠군.  
이런식으로 우리는 한 문장 내에서 겉으로 드러난 서술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그 문장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거지.

[문단,글] 어떻게 이해하는데?

여기부터 필자가 3년간 기출을 분석하고 수천 개의 비문학  
지문을 읽으며 터득한 독해방식의 색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 독해이론의 기본 전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의 글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 쓰인다.
- 2) 하나의 문단은 그 주제에 대해 '하나의 서술'을 하기 위해 쓰인다.(가장 중요)
- 3) 하나의 문장은 그 문단의 서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충 글을 어떻게 읽을지 감이 잡힐 겁니다.  
쉽게 말해 한 문단 내의 문장을 읽으면서”이 문단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거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그 문단이 하나의  
글의 주제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지만 찾아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문단을 최대한 눌러 읽어  
글의 소재를 잡아주고, 나머지 문단에서 그 소재를 가장 상세  
하게 서술해주는 문장을 찾아줍니다.

그 후 저같은 경우는 그 문장에 물결표를 진-하게 박아줍니다.  
이제 이걸 모든 문단에 공통적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단마다 하나의 문장에 물결표시가 쳐지게 되죠.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가기 전에 그 문장들'만' 읽고 문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좀 당황스럽죠?

제가 이런식으로 독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서술을 하기 위해 쓰이므로 문단  
내에서 그 서술을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문장(이하 핵심문장)  
하나만 찾아서 물결을 친후 글을 끝까지 읽은 후 물결친 핵심  
문장만 다시 읽으면 지문을 약 10초만에 한번 더 읽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처음 읽을때는 잡기 힘든 글의 주제가 2회독  
때는 더욱 명확하게 잡히게 되어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며,  
심지어는 선지에서 묻는 정보가 기억이 안난다면 지문으로 돌  
아가 핵심 문장을 보고 어느 문단에 그 정보가 있을지 예측해  
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기도 가능해지죠.

물론, 이는 기본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므로 약간의 예외는 존재  
합니다. 한문단 내에서 핵심문장이 여러개인 경우도 가끔 발생  
합니다.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글의 흐름을 서술할 뿐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아마도 잘 안 믿기고 당황스러우실 텐데 다음 챗터에서 기출을  
통해 예시를 같이 한번 봅시다



## 챕터 2) 실전 연습

이제 지금까지의 이론을 아래의 실제 지문에 적용해 읽어보자.

1. 단어는 천천히 그 의미를 고려하며 읽자
2. 문장내의 숨겨진 전제를 항상 고려하여 이면의 의미까지 파악하자.
3. 한 문단마다 핵심 문장에 물결표시를 하며 읽자.
4.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문장들만 다시 읽어 글의 필자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지를 이해하자.

서양 근대 철학의 주류는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론에서는 진리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한다. 서양 근대 철학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참된 진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철학적 원리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이 명제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명제는 그에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의심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의심의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명제로부터 그는 인간이 의지해야 할 완전한 존재로서 '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외부 물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나아가 모든 과학이 보증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성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신은 모든 진실들의 총체 모든 참된 사상들의 체계를 산출하는 근본 원리로서 무한 지성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 지성은 무한 지성의 일부이거나 그것의 산물일 뿐이다. 외부 물체에 대한 인식은 감각을 통해 정당화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진리들의 원천, 즉 신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또 다른 서양의 근대 철학자 버클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 명제는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 혹은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다. 우리는 흔히 지각이 관념과 그것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버클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외부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관념이다. 또한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다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주장은 ‘관념만 존재한다.’ ‘관념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버클리는 외부대상이 관념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며 관념과 관념은 추론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인과 관계는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관념의 원인은 다른 관념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을 야기하는 것은 관념을 지각하는 주체, 즉 지각 주체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로부터 버클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각 주체에 의존하여 지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버클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이 지각 주체에 의존한다면 진리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주의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버클리는 ‘무한 정신’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관념들의 총체를 ‘자연’이라 한다면, 이 자연을 생기게 한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버클리는 이 정신을 ‘자연의 저자’ 다른 말로 ‘무한 정신’이라고 칭한다. 무한 정신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들에 작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는 존재로서 어딘가에 존재한다. 버클리는 지각 주체인 ‘나’는 정신이자 실체로서 무한 정신에 의존하고, ‘나’가 지각하는 것은 ‘나’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한정신이 아닌 ‘유한정신’이라 규정한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유한 정신이 아닌 무한 정신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 주체에 의해 지각되지만 지각 주체의 지각은 ‘자연’의 근본이 되는 무한정신에 의거함으로써 진리로 존재한다.

[지문 해설] 핵심문장은 두꺼운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 1문단

서양 근대 철학의 주류는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론에서는 진리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한다.

글의 전개를 암시해주는 1문단인 만큼 천천히 읽으며 소재를 잡아보자. 누가 봐도 '진리'가 소재임이 명확하다.

이제부터 다음 문장들을 읽으며 '진리가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한 주장을 파악해보자.

서양 근대 철학의 인식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데카르트를 꼽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참된 진리를 도출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데카르트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위의 명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는 철학적 원리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좀 감이 잡힌다. 아마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부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데카르트의 핵심 주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인 만큼 핵심문장이므로 물결표를 쳐주고 싶다.

## 2문단

데카르트의 이 명제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명제는 그에게 인간의 불완전성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인간은 의심하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의심의 대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앞의 명제로부터 우리는 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확인만이 가능할 뿐, 그 의심의 대상의 참거짓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명제로부터 그는 인간이 의지해야 할 완전한 존재로서 '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데카르트의 주장이다.(핵심문장)

결국 우리는 대상의 참거짓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신'이라는 존재를 개입시켜 해결하려는 것이다.

전제추론: 인간이 '신'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데카르트는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문장을 명확히 잡으면 하나의 문단의 나머지 문장을 이해하기 수월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이다.

앞서 제시한 이론에서 말했다시피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 쓰인다.

즉, 핵심문장만 제대로 잡는다면 그 문단 내의 나머지 문장을 핵심문장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외부 물체에 대한 우리의 판단, 나아가 모든 과학이 보증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성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문장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신이라는 존재를 개입시켜서 외부대상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보증 하겠다는 말이다.

신은 모든 진실들의 총체 모든 참된 사상들의 체계를 산출하는 근본 원리로서 무한 지성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 지성은 무한 지성의 일부이거나 그것의 산물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핵심문장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신으로부터 ‘모든’ 진실이 도출되며 이러한 신을 ‘무한지성’이라 칭한다. 당연히 인간은 그와 반대되는 ‘유한지성’을 가진다. 이는 위의 전제추론을 통해 인간을 신과 달리 불완전한 존재라고 주장한 데카르트의 관점을 파악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완전함=무한/불완전함=유한)

외부 물체에 대한 인식은 감각을 통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진리들의 원천, 즉 신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문장과 같은 말이다.

당연히 외부대상은 불완전한 인간의 유한지성이 아닌 완전한 신을 통해 정당화 되어야 하겠지.

### 3문단

데카르트에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또 다른 서양의 근대 철학자 버클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이 명제는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 혹은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다.

새로운 철학자가 등장했다. 그의 주장을 잘 파악해보자.  
버클리는 데카르트와 달리 ‘지각 주체’가 아닌, ‘지각의 대상’의 존재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지각이 관념과 그것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버클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외부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관념이다. 또한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다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버클리의 주장은 ‘관념만 존재한다.’ ‘관념이 아닌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버클리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우리는 관념을 지각한다.”, “지각하지 않으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관념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이해해보자. 버클리는 앞에서 ‘지각되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관념=지각되는 것’ 즉, “우리는 관념을 지각한다.”와 같은 말이 된다. ‘관념이 아닌 것은 없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보자. 버클리는 앞에서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관념이 아닌 것=지각되지 않는 것’ 즉, 앞에 나온 ‘관념=지각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로부터 버클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각 주체에 의존하여 지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드디어 핵심 문장이 나왔다.

앞에서 나온 말을 정리해주는 문장으로서, 데카르트와 다르게 버클리는 ‘지각 주체’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문단

버클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이 지각 주체에 의존한다면 진리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주의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버클리는 ‘무한 정신’의 개념을 제시한다.

버클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온다.

아무래도 버클리는 ‘지각 주체’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주장했으므로 모든 ‘지각 주체’에게 성립해야 하는 ‘진리’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꽤나 그럴싸 하다. 이를 어떻게 재반박할지 다음 문장을 통해 알아보자.

그는 존재하는 모든 관념들의 총체를 ‘자연’이라 한다면, 이 자연을 생기게 한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버클리는 이 정신을 ‘자연의 저자’ 다른 말로 ‘무한 정신’이라고 칭한다. 무한 정신은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들에 작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는 존재로서 어딘가에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신’과 유사하게 버클리 또한 ‘무한 정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진리’에 대해 주장한다.

버클리는 지각 주체인 '나'는 정신이자 실체로서 무한 정신에 의존하고, '나'가 지각하는 것은 '나'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한정신이 아닌 '유한 정신'이라 규정한다.

이 또한 데카르트와 유사하게 버클리는 '지각 주체'(나)를 불완전한 존재로서 '유한 정신'이라 칭하고 '무한 정신'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유한 정신이 아닌 무한 정신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 주체에 의해 지각되지만 지각 주체의 지각은 '자연'의 근본이 되는 무한 정신에 의거함으로써 진리로 존재한다.

앞에서 나온 말을 핵심문장이 '요약'해 주고 있다.

지각 주체는 '유한 정신'에 의존해 지각하여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정신'에 의존하여 지각하므로 지각 자체가 진리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 핵심 문장을 통해 글의 주제 찾기

1. 자신이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2. 결국 이 명제로부터 그는 인간이 의지해야 할 완전한 존재로서 '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3.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라는 명제로부터 버클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각 주체에 의존하여 지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존재하는 것은 지각 주체에 의해 지각되지만 지각 주체의 지각은 '자연'의 근본이 되는 무한 정신에 의거함으로써 진리로 존재한다.

요약하면,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진리로 파악하였지만, 의심하는 대상의 참/거짓을 진리로 알기 위해서는 '신'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버클리는 지각 주체에 의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지각은 '무한 정신'에 의존하므로 이는 진리로 존재한다.

이런식으로 핵심문장을 통해 지문을 '요약'하면 적어도 "내가 글을 읽긴 읽었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 핵심 문장은 한 문단을 다 읽고 나서 "아 이게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네"를 느낀후에 물결표를 쳐주지만 가끔 읽는 도중에 "와 이 문장 개중요한데?"가 느껴진다면 밑줄을 친 후 나머지 문장들을 핵심문장과 '같은말'로 연결하여 읽어줄 수도 있다.

어차피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 쓰이기 때문..

### 챕터 3) 비문학 기출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우선 비문학 기출을 왜 봐야 하는지부터 얘기해봅시다.  
당연히 독자분들이 수능날 읽고 풀어야 할 지문과 선지는 이감,상상,서바 등 사설이 아닌 기출과 가장 유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출과 완전히 같은가?  
당연히 기출과 수능날 마주할 지문과 선지는 다른 사람이 출제 할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기출을 이렇게 봅시다.

1. 지문을 앞에서 나온 방법대로 읽어본다.
2. 모든 문제를 푼다.
3. 다시 한번 지문을 읽되, 핵심문 장을 이미 1회독 때 파악했 으니 최대한 한 문단 내의 문장들이 핵심 문장과 '같은말'로 연결하여 읽어본다.
4.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
5. 기출을 회독 할 때에는 내가 왜 이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선택했는지 이유를 생각하고 제제별(경제,법,철학,기술,과학) 로 반복돼서 나오는 핵심문장을 모아서 본다.

이런식으로 기출을 회독하면, 실전에서 핵심 문장이 언제 나올 지가 대략 예측이 됩니다.

예를들어, 철학지문에서는 철학자의 주장,반박 혹은 [즉,그러나,따라서..]등의 연결사만 보고도 핵심 문장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기출은 얼마나 봐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을 무한 회독하는 식으로 하기보단,  
세 번만 연속해서 봤으면 그 이후부터는 가끔 기출을 위에 서  
술한 5.의 방식으로 봐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기출을 맹신하여 기출  
만 파고 사설,ebs는 소홀히 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냥 가끔 사설,ebs를 풀다가 기출이 그리워지면 한두지문만  
읽고 덮으면 됩니다.

#### 챕터 4) 올바른 비문학 사실 활용법

기출 3회독을 마친 독자분들은 이제 사실과 ebs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강사나 수험생 선배들이 말하는 말 중 “사실만 많이 보다보면 오히려 수능을 망한다.”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 사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실과 기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문이 아닌 문제에서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기출은 정답 선지를 낼 때

독해력이 좋아 글의 화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문장을 정확히 파악해 '글'을 읽어낸 학생은 바로 선지의 정오 판단이 가능한데,

사실은 핵심문장이 아닌 즉, 세부적이지만 '글'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비핵심문장을 집요하게 선지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핵심문장도 선지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사실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하던대로 지문 독해 후 문제풀이
2. 오답 할 때 정오판단을 잘못된 선지의 판단 근거가 핵심문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
3. 만약 도출될 수 없다 하더라도 납득 가능한 세부정보라면 확실히 오답,피드백하기
4. 납득이 안될 정도로 숨은그림 찾기 수준의 세부정보라면 가볍게 해설지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a

#### 챕터 4.5) 효과적인 비문학 공부법

1. 수험생활 도중 최대한 독해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최소한 세 지문 정도는 읽는게 좋습니다.

2. 되도록 아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국어 공부를 해 줍시다.

3. 학교나 학원에 대중교통으로 통학한다면 졸거나 폰 좀 보지 말고 비문학 지문을 읽어줍시다.

대중교통만큼 비문학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수능날 80분간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대중교통 통학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 지하철이나 타고 종점까지 가는동안 비문학 공부를 해줍시다.

4. 비문학 공부는 몰아서x 틈틈이 자주자주 봐줍시다.

하루에 국어 공부 시간을 따로 내서 하기보다는 수학을 하다가 탐구로 넘어가는 도중에 비문학 2지문 정도 읽어주고, 밥을 먹고 쉬는 동안 3지문 정도를 봐주는 식으로 공부하길 권장드립니다. 한번에 몰아서 하면 언어과목 특성상 감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의 끝은 반드시 국어로 마무리 해줍시다.

5. 비문학은 영어와 함께 공부해주기

어차피 같은 언어과목이므로 되도록 둘다 틈틈이 연속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